

해남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효과 ‘뚜렷’

전체 응답자 91%…“소비 증가 체감”
1인 20만원씩·총 6만2천323명 지급
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 순환 기반 회복

해남군이 지난 2월 지급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 민생회복지원금 지

급이 완료된 지난 3월31일부터 4월9일까지 총 2천765명의 군민들에게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가 ‘소비증가를 체감했다’고 응답했으며, 87%는 ‘가계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답하는 등 군민 생활비 부담 완화와 경제 심리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응답자의 79%는 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전액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군민들의

소비촉진과 생활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면서 정책 효용성이 높았음이 확인됐다.
지원금의 주된 사용처로는 외식비, 주유비, 식료품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대상 설문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91%가 ‘매출이 증가했다’, 59%가 ‘고객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해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72%는 고객들의 구매력이 향상됐을

을 체감했다고 답해 지역 내 소비가 활발해졌음을 확인했다.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89%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해남군은 지난 2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 인원은 국외체류자 등을 제외한 총 6만2천323명이며 총 지급액은 124억6천400만

원이다. 특히 지원금은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 기반을 회복하고 군민의 실질적 삶을 지원한 의미 있는 정책으로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
/해남=박필용 기자



정철원 담양군수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 돌입

정철원 담양군수가 지난 9일부터 군민과의 밀착 소통을 위해 기존 12개 읍·면 단위에서 진행하던 군민과의 대화에서 더 나아가,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 군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사진〉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대화는 군민이 행정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군민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찾아가는 현장 행정’의 실천으로 군수의 강력한 의지 아래 추진됐다.
지역 곳곳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깊이 공감하기 위해 담양읍을 시작으로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첫날 9일에는 객사리, 담주리, 천변리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해 군정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 공무원들과 함께 건의 사항 청취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군민들은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비롯해 군정에 대한 궁금증을 물으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으며, 정 군수는 “꼭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현장 공무원들에게도 관련 대응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담양읍 쑈개 마을 방문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며, 군은 8월까지 관내 12개 읍·면 325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소통할 계획이다.
정철원 군수는 “군정의 중심은 늘 군민이어야 한다”며 “진심을 다해 군민을 만나고, 군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화를 통해 생활 속 불편을 함께 해결하며, 군민과 함께 ‘힘찬 미래, 더 큰 담양’을 책임 있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담양=정승균 기자



조성오 목포시의장, 노인회관·문화복지센터 건립 기어

HD현대삼호와 지역협력사업 협약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이 목포시노인회관 강당 증축과 원산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힘을 보태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조성오 의장(원산·연산·용해동)은 HD현대 삼호 본관 1층에서 HD현대삼호-목포시 지역협력사업 협약식에 참여했다.
행사에는 김재을 HD현대삼호 대표이사과 김원이 국회의원(목포),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박문옥 전남도의원, 정재훈 목포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조성오 의장이 김원이 국회의원과 목포시, 전남도·목포시의원 등과 함께 노력한 결과로 평가받고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공헌을 목표로 하는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HD현대삼호가 목포시 노인회관 강당 증축 및 원산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의 예산을 부담하고, 설계·시공 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목포시에서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며, 해당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회관 강당 증축과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공간 부족으로 인한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오 의장은 “목포시의 중요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준 HD현대삼호 임직원들과 김원이 국회의원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광군의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위촉

7명 구성…연구활동 계획서 심의

영광군의의회는 “최근 ‘영광군의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진행했고, 2025년 영광군의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지

정,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로 앞으로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맡게 된다.
회의에서는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영광=김동규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200만 관람객 ↑ …‘정원캉스’ 흥행

사계절 콘텐츠·야간 개장 등 ‘호응’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 157일 만인 지난 8일, 올해 누적 관람객 200만명을 돌파했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200만 번째 관람객의 주인공은 서울에서 방문한 30대 부부로, 현충일 연휴를 맞아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7시간을 운전해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았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올해 사계절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람객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야간 개장과 함께 ‘정원캉스’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순천시는 300만명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7월부터는 운영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해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한여름 오아시스’를 콘셉트로 ▲개울길 정원캉스 ▲한옥 밤마실 ▲정원드림호 수상버스



노관규(왼쪽) 순천시장이 서울에서 방문한 200만 번째 관람객 부부와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김 ▲어싱 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에는 기업과 연계한 생태·치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정원 생태 전문 강자와 테라피, 해설사 동행 투어 등을 통해 직장인들에게 힐링

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이 단순한 관광지 넘어 사계절 쉼과 치유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품격 있는 프로그램으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여름시즌 본격 개장

14일 개장 기념 DJ 퍼포먼스 ‘기대’
썸머 페스티벌·가족 코믹 뮤지컬 공연
연령층 시설·풀사이드 바비큐존 확대

호남 최대의 물놀이시설인 전남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가 본격적인 여름시즌 운영에 돌입한다.
10일 디오션리조트에 따르면 올여름 디오션 워터파크는 ‘즐거움이 가득한 디오션 유니버스’를 주제로 ‘2025 퍼니버스 썸머 페스티벌’을 개최,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물놀이와 짜릿한 공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름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14일 대개장을 기념해 워터파크 내 특설

무대에서는 DJ 루나와 DJ 원의 퍼포먼스, 지역 극단인 여수 상상플레이스와 협업한 가족 코믹 뮤지컬이 펼쳐질 예정이다.
물놀이와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색 구성으로, 시원한 물속에서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퍼포먼스를 함께 만끽할 수 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여름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터파크의 대표 어트랙션들도 본격 가동된다. 1.5m의 물을 쏟아올리는 대형 워터캐논 ‘캐논볼’, 72도의 가파른 경사를 자랑하는 ‘다이렉트 슬라이드’를 포함한 10여종의 실내·외 어트랙션이 철저한 안전 점검을 모두 마치고 운영 준비를 완료했다.

실내 파도풀, 유수풀, 키즈풀 등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수영장 시설이 운영된다.
특히 고객 호응이 높았던 ‘풀사이드 바비큐존’은 기존 2개 구역(실외 유아풀존, 인피니티존)에서 4개 구역(키즈풀존, 스카이존 추가)으로 확대되며, 사전 예약 후 식재료와 조리도구를 가져오면 간편히 이용 가능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김려균 디오션리조트 실장은 “2025년 여름시즌은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공연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고객 안전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여수를 대표하는 여름 명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디오션 워터파크는 14일부터 전면 개장돼 매일 운영되며, 입장권 예약과 운영 일정 등은 디오션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 전국대회서 첫 우승

창단 1년 만에…야구 유망주 가능성
꿈나무 리그서 결승 진출 8대5 승리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이 전국대회에서 창단 1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사진〉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 대회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장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개최됐다.
‘2025 화성특례시장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는 총 134개 팀, 2천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로 새싹, 꿈나무, 유소년, 주니어 등 총 7개

리그로 나뉘 진행됐다.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은 이번 대회에서 유소년 리그(6학년 이상), 꿈나무 리그(6학년 이하)에 참가했다.
유소년 리그는 22장에서 수원 장안구, 16장에서 KT 위즈를 차례대로 꺾고 8강에 진출했으나 전통 강호 휘문아카데미에 4대2로 아쉽게 역전패했다.
꿈나무 리그는 8강전에서 의정부 경민을 12대5, 4강전에서 빅드림을 상대로 10대6으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HBC에 1회 말 2점을 실점한 후 3회 말 1점 만회에 그치며 HBC에 끌려갔지만 5회 초에 7득점을 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5회 말에 3실점으로 막으며 8대5로 승리해 창단 첫 우승을 차지했다. HBC 유소년 야구단은 매년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팀으로 올해 3월 황성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서 우승했던 팀이다.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은 지난 3월 ‘제10회 순창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이후 3개월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야구 불모지인 완도에서 이뤄낸 큰 성과이며 야구 유망주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됐다.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은 취미·육성·선수 진학반 회원을 상시 모집 중에 있으며, 관련 문의는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완도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사업으로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 육성 지원’을 선정, 기부금을 모금 중이다. /완도=윤보현 기자